

일본의 독도 영유권 왜곡 규탄 결의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08년 7월 25일

제 안 자 : 장정옥 의원외 7명

1. 주 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역사왜곡과 영토주권 침해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함

2. 제안이유

가. 지난 7. 14일 일본정부에서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지침이 되는 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명기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 침탈 야욕을 드러낸 것으로, 신제국주의를 앞세워 역사왜곡과 동북아 평화질서를 깨트리는 일본정부에 대해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고 한·일 우호관계를 악화시키는 역사왜곡 작업을 지금이라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자기들 영토라는 망언을 일삼는 일본정부에 대해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일본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를 중단시키고 다시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4만 중구민과 함께 전 의원의 뜻을 모아 결의하고자 한다.

3. 결의문 및 서명부 : 따로 붙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왜곡 규탄 결의문 서명서

연 번	의 원 명	서 명	비 고
1	박 래 환		
2	박 문 태		
3	김 영 길		
4	박 성 만		
5	박 홍 규		
6	박 성 민		
7	김 석 준		
8	황 세 영		
9	권 순 정		
10	장 정 옥		
11	홍 인 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왜곡 규탄 결의문

지난 7월 14일 일본정부에서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지침이 되는 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명기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 침탈 야욕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으로, 제2차세계대전의 전범국이며 식민지 강점으로 인해 우리국민들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이같은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 양국간의 우호관계 악화는 물론 동북아 평화 질서를 깨트리는 만행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자기들 영토라는 망언을 일삼는 일본정부의 신제국주의적인 침탈행위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고만 있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24만 중구민과 함께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다시 한번 대내외에 천명하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를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일본정부는 중학교 교과서 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명기한 독도의 일본 영토 지침을 즉시 철회하고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인정하라.
1. 일본정부는 지난날 수많은 이들에게 피눈물 나는 전쟁의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었던 과거를 잊지 말고 침략주의적 망령에서 벗어나 두 번 다시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
1. 이 같은 요구에도 계속해서 독도영유권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24만 중구민과 함께 독도 수호를 위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엄중 대처할 것임을 밝혀둔다.

2008년 7월 25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